

전주마당창극 '오! 난 토끼 아니오'

전주한옥마을 대표 야간 공연 콘텐츠로 12일부터 9월 4일까지 매주 토요일 펼쳐져

오는 12일, 전주한옥마을 대표 야간 공연 콘텐츠인 '전주마당창극'이 새로운 포맷으로 돌아온다.

웃음과 해학, 관객과 배우 간 차진 입담 등 다양한 매력으로 일찌감치 인기 공연으로 자리한 전주마당창극이 올해로 '10년'이라는 의미있는 숫자를 맞이했다. 그 열 번째를 기록할 공연은 수궁가를 모티브로 한 '오! 난 토끼 아니오'로 수준 높은 마당창극을 표방했다.

지난 4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는 백옥선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성영근 전주한벽문화관장, 그리고 이번 공연을 준비한 주요 연출진 및 출연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공연의 개요와 제작 포인트, 방역 대책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소개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극의 뼈대는 앞서 언급한 수궁가이다. 수궁가는 대중에게 제법 익숙한 이야기이나 연출법에 따라 내용과 결말이 다양하게 변주되는 작품이다. 이번 전주마당창극 '오! 난 토끼 아니오'는 수궁가 중 '토끼 역할은 여성'이라는 선입견을 깨고 남자 배우가 토끼 역할을 맡는 신선함과 파격을 더했다.

또한, 주요 배역은 전국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여 배우의 역량과 그에 따른 공연의 완성도를 높였고 주인공 격인 별주부와 토끼뽀만 이 아닌 출연하는 모든 배역의 재기 가득한 장면들이 그간의 수궁가와 또 다른 즐거움을 선보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연출과 대본을 맡은 '정호봉' 연출가(중앙대 전통연희학부 교수)는 이번 연출 소감에 대해 마당창극이라는 사업명에 걸맞게 소리에 대한 비중을 높였으며 대중성도 갖추어 지속가능한 공연을 준비했다고 밝히며, 재해석을 시도하기 보다 선배 예인(藝人)들의 날카로운 풍자와 해학이 살아있는 원작의 깊이를 더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번 공연의 작장은 국립민속국악원 소속이자 대통령상 수상자인 '방수미'가 참여하여 창극의 완성도를 더했다. 그는 "이전 마당창극과



전주한옥마을 대표 야간 공연 콘텐츠 전주마당창극 '오! 난 토끼 아니오'

비교해 봤을때 이번 공연 출연자의 대부분이 관소리 전공자이며 소리의 비중이 높아졌다. 따라서, 작창의 무게감과 부담이 컸지만 지역의 젊은 소리꾼과 타 지역 예술가의 조화를 지켜보며 직접 소리할 때와는 다른 또 다른 에너지를 느꼈다. 그야말로 1초도 허투루 볼 수 없는 작품이라고 자신 한다"며 출연 배우와 작품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인들이 심혈을 기울인 2021 전주마당창극은 지난 5월 말 개관한 전주한벽문화관의 '마당창극 야외공연장'에서 진행된다. 전주시가 시민을 비롯해 전주시를 찾은 모든 이들에게 우수한 공연 환경을 제공하고자 마련한 '마당창극 야외공연장'은 한옥마을의 열린 공간에서 야외 공연의 진수를 펼쳐낼 한 폭의 도화지가 될 예정이다. 전주문화재단 백옥선 대표이사는 "오! 난

토끼 아니오'는 전주마당창극 10년을 기념할만한 수작(秀作)이다. 이번 공연은 '전주마당창극이 우리 지역 대표 브랜드 공연 자리를 확고히 할 이정표가 될 것이다'고 전하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공연을 이끌어간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주한벽문화관은 안전한 공연 관람을 위해 좌석 거리두기를 시행, 객석 약 130여 석 오픈하며 손 소독, QR출입 등 기본 방역지침을 철저히 갖추고 관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관람료는 전석 1만5,000원이며 다양한 할인제도를 이용하면 더욱 알뜰하게 공연 관람이 가능하다. 온라인 예매는 인터파크, 네이버, 티켓링크를 통해 가능하다.

공연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063-283-0223(화~금))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군산시립예술단 호국음악회' 24일 개최

군산시 시립예술단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위훈을 기리고 유가족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 오는 24일 오후 7시30분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군산시립예술단 호국음악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군산시립교향악단과 군산시립합창단이 함께하는 이번 합동음악회에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꽃잎을 떠나야 했던 꽃향기처럼'이라는 주제로 마음이 치유되는 시립교향악단의 명품 선율과 시립합창단의 국악과 어우러지는 웅장한 합창으로 진행된다. 선열들의 뜻을 추

모하고, 호국정신을 마음 깊이 되새기며, 국가의 소중함을 음악으로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이번 음악회는 6·25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했던 격동의 시대상황과 잘 어우러진 음악뿐만 아니라, 추억의 얼굴, 감사의 얼굴, 그리운 얼굴을 기억 하고자 6·25전쟁의 역사적 의미와 교훈을 되새겨 보는 공연을 마련했다.

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백정현의 지휘 아래 1부에서는 초혼, 보통사람을 위한 광과래,

이영조 작곡의 여명이 연주되며, 2부에서는 안개꽃 추억으로, 그대와의 대화, 슬픈 사랑의 노래, 짧은 날의 기억, 그리고 3부는 군산시립합창단과 국악이 함께 하는 강강술래, 일어서라, 조국의 혼을 들려줄 예정이다.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군산시민들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고있는 군산시립예술단은 매년 품격 높은 '정기·기획음악회, 읍·면·동 작은음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예술단이 될 수 있도록 위상을 한층 더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공연은 사전예매로만 티켓구입이 가능하며 공연은 마스크 착용, 객석 간 띄어앉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된다. /군산=남현봉 기자



도 유형문화재 지정 기념 전시회

부안청자박물관, 소장 '청자 상감 정사색명 유로문 매병'

부안군 청자박물관 소장 '청자 상감 정사색명 유로문 매병(靑瓷 象嵌 淨事色銘 柳蘿紋 梅瓶, 이하 정사색 매병)'이 지난 5월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284호로 지정됐다.

부안청자박물관에서는 정사색 매병이 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여 6월부터 금년 말까지 작은 전시회를 개최한다.

정사색 매병은 어깨부분에 연꽃문(연꽃잎을 펼쳐 놓은 형상을 도안화 시킨 무늬)이, 몸체에는 버드나무와 갈대가 번갈아가며 각2개씩 흑백상감으로 장식되어 있다. 버드나무와 갈대 사이에는 크고 뚜렷하게 '정사색(淨事色)'이라는 한자(漢字)가 흑상감으로 새겨져 있다.

'정사색'은 고려 국왕이 도교(道敎)의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준비를 맡아 하던 왕실 내전의 관직으로, '고려사(高麗史)' 백관지(百官志)에 의하면 고려 충렬왕~우왕대(1274~1388년)에 걸쳐 왕이 직접 참여하는 초제(醮祭) 기록이 확인되고 있다.

즉 '정사색 매병'은 고려 국왕이 도교에서 행하는 의식인 천지와 성신에 대한 제사를 지낼 때 직접 사용했던 기물로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도자기에 '정사색'이 새겨진 예는 이 작품이 유일하다.

정사색 매병은 2013년 7월 개인소장자인

김완식 선생으로부터 부안청자박물관에 기탁되었으며, 수 년 간 이곳에 보관 관리되면서 전시와 연구에 활용됐다.

그러다가 2017년 9월 김완식 선생은 부안군에 이 작품을 무상으로 기증했다.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작품이라 무상 기증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완식 선생은 어떠한 조건도 없이 공공의 자산으로 흔쾌히 기증을 해주었다. 이후 부안군에서는 정사색 매병을 도 지정문화재로 신청하였으며, 2021년 5월, 드디어 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이 작품은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중에서 도자기로는 최초의 지정 건이며, 개인소장자에 의해 무상 기증된 작품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할 수 있다.

정사색 매병이 600년 이상을 떠돌다 뜻있는 사람과의 인연으로 부안에 영입된 안락하게 되었고, 도 지정문화재라는 타이틀까지 얻게 된 것은 존재의 이유에 의한 필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전시를 통해 정사색 매병에 얽힌 특별한 사연과 문화재적 가치를 살펴보는 뜻 깊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